

폭염 영향예보 음성전달 시범서비스 시작!

- 농촌 어르신 안전을 위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음성 중심의 위험기상정보 제공
- 충청남도 4개 시·군(공주시, 보령시, 부여군, 예산군) 협업 운영(6~9월)

□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경희)은 공주시, 보령시, 부여군, 예산군과 협업하여 문자정보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에게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*을 활용해 여름 음성 중심의 폭염 영향예보** 시범서비스를 운영(6.5.~9.30.)할 예정이다.

- * 휴대폰을 통해 마을방송을 듣는 시스템으로,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, 다시듣기 가능
- ** 폭염으로 인한 사회·경제적 재해의 리스크 경감을 위하여 지역·분야별 영향정보를 4단계 위험수준(관심, 주의, 경고, 위협)과 대응요령으로 제공하는 서비스

□ 앞서(5월), 대전지방기상청은 공주시, 보령시, 부여군, 예산군과 여름철 폭염 및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응 사항을 공유하고, 폭염·호우 영향예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□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음성 중심의 폭염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는 대전지방기상청에서 폭염 등 여름철 위험기상 예상 시 농촌 어르신을 위한 알기 쉬운 기상정보 문안을 제공하고, 협업 지자체에서는 시·군 담당자 또는 마을관리자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달력이 높은 음성 중심의 위험기상정보를 농촌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체계로 운영된다.

□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눈발에서 일하는 농촌 어르신이 읽기 힘들었던 휴대폰의 문자가 아닌, 정보 습득이 쉬운 음성(스마트폰 앱, 전화통화 등)으로 정보를 전달받아 언제, 어디서나 폭염으로 인한 예상 영향부터 대처

방법까지 한 번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, 온열질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□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은 “폭염, 열대야 등 무더위 속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려면 무엇보다 영향예보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.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	장재동 (042-363-3510)
		담당자	주무관	박형진 (042-363-3528)

<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음성중심의 폭염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전달체계>

